

책머리



River & Culture

2013년 계사년(癸巳年) 신년사



김창세 | 한국하천협회 회장

존경하는 하천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지나가고 희망찬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하천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시기를 바라오며,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와 물 문제 해결을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물 강국 글로벌 리더로 강력히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적된 노하우 및 신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융합 물 관리 선진기술을 토대로, 또 다른 해외시장의 개척의 길이 열리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회원(사)님을 비롯한 모든 하천인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하천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에서 비롯된 산물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하천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성을 계기로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내·외 물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련기관들을 결집하는 융합 네트워크로서 국내 워터 파트너십(Water Partner Ship)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즉 국외 파트너십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형 수문예측시스템 개발, 물 전문기업 육성, 물 전문가 양성, 물 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한 우리협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물 산업의 해외수출 및 국제교류의 중심적 창구로서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하천인 여러분!

올해 2013년은 협회의 제4대 회장단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및 수자원 분야의 최고 학식과 전문성, 그리고 경륜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실 새로운 집행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과 협력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미려한 저와 함께 제3대 집행부를 이끌어 주신 임원단 및 위원장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대 임충수 회장님과 전임 김국일 회장님 그리고 국토해양부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사) 여러분께서 협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은 저희 제3대 집행부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으며, 향후 협회와 하천분야의 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그동안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님을 비롯한 하천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값진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3. 1

한국하천협회 회장 김 창 세